

결혼과 여성의 지위 - 남자들의 결혼 손익계산서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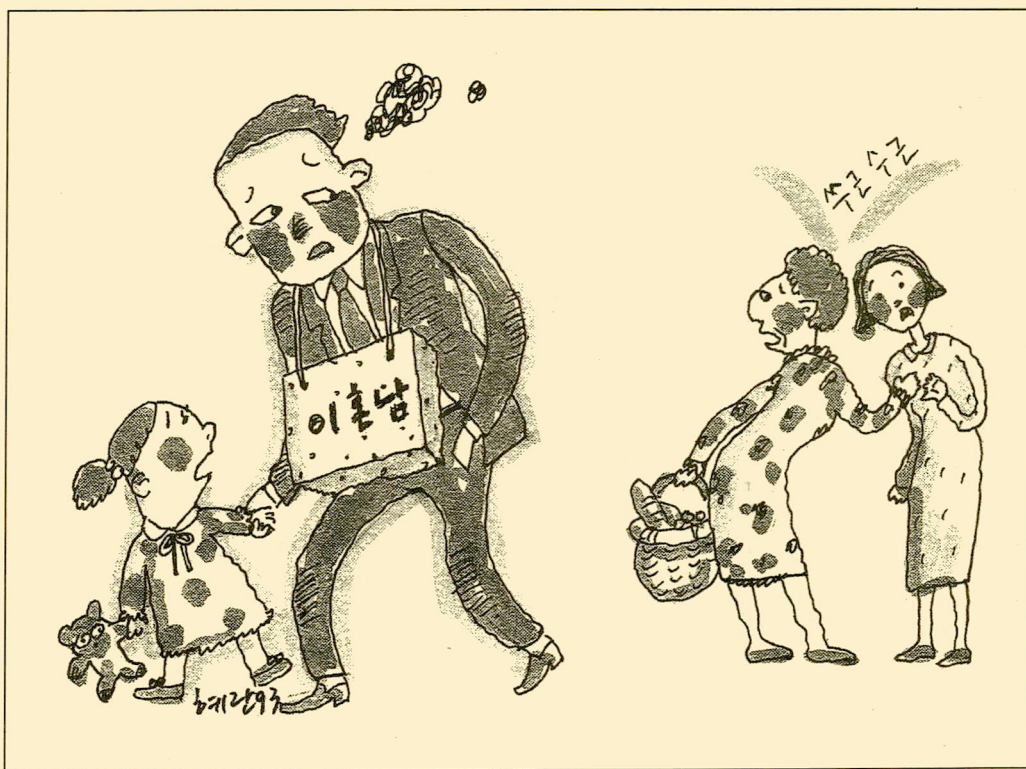
남자 가슴에 남아 있는 이혼의 상처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아이의 교육은 당연히 아내의 책임이다. 남자는 가끔씩 아내에게 “집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호통을 치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그만이었다.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남자가 맡게 되면 여자가 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에 부딪치게 된다.

훈련되지 못한 아버지 아이 때문에 마음만 아프다

올해 국민학교 2학년 된 아들을 기르고 있는 H(39)씨는 아이 때문에 생기는 일로 상심하는 일이 많았다. 유치원 때부터 학부모를 오라고 할 때도 한번도 가보질 못했다. 학교에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도 감히 혼자 학부모의 자격으로 나설 용기가 없는 것이다. 엄마가 아닌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간다는 것이 H씨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어떤 것으로 다가온다. 아이를 위한다면 본인이 괴롭더라도 학부모로서도 자신을 가지고 아이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일 중에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던 H씨 마음 뿐이지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다. 소풍갈 때도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싶고 숙제도 봐주고 싶고 웃도 더 잘 챙겨주고 싶은 것이 아빠된 H씨의 마음이지만 시간도 없거니와 뭔가가 어색한 느낌에서 잘 되질 않는다.

아이를 돌봐주는 H씨 어머니께 불효한다는 생각,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



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이 항상 따라다닌다. 가끔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여자가 자기아이처럼 길러줄까? 제 자식 낳으면 이 아이는 뒷전이겠지?” 하는 생각에 망설이기만 한다.

“자위는 비참하고 매춘은 더럽지만 ...”

아이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빠인 H씨가 부성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내에게 아이에 관한 모든 걸 일임하고 생활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란 과연 부모될 자격이 있는지, 또 남자들에게 편안한 듯이 보이는 결혼생활이 남자들에게서 부성을 박탈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다.

아내가 있을 때는 언제나 ‘배설 가능했던’ 성욕을 처리하는 문제도 이혼한 남자의 일상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돈주고 여자를 사자니 더럽고”, “자위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난호의 H씨는 돈을 주고 여자를 사기도 해봤고 일로 만난 여자와 육체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항상 “뒷맛이 쓰다”고 말한다. 잠깐 여자의 몸의 일부를 빌리거나, 아침에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만을 남겨 준다. H씨는 요즘 주로 자위를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떤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 아내가 치워주던 배설물을 자기 손으로 치우다보면 스스로 기죽

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생활만 하던 여자들은 이혼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만 가정의 일상사는 잘 꾸려간다. 남자들이 결혼생활 중에 바깥생활에 열중했다면 이혼 이후에도 직장생활만은 잘 유지되어야 옳을 것 같다.

흐트러진 일상생활 직장생활도 파괴로 연결

그러나 이혼한 남자들은 직장생활을 잘 지켜내지 못한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군데서 온다.

하나는 이혼한 남자에게 쏟아지는 편견들이다. 이혼한 여자도 지내기 힘들지만 이혼한 남자는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도 여자들은 자기를 이해

해주는 사적인 지원자들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어서 그들과 수다도 떨고 상담도 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줄여나가면서 세상의 편견을 이겨나가곤 한다. 그러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버릇이 든 남자들은 내면의 고통을 말하는 것도 서툴고 또 말할 때도 없다.

이혼이란 남자들의 자부심인 ‘가장’의 자리에서 파면당했음을 의미하는 불명예이고 사회적인 남자의 신분으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자’가 되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이들에게 던져진 이혼의 낙인이란 의외로 심각하다.

H씨는 이혼한 지 8년째지만 결혼한 남자로 행세하고 다닌다. 이혼 초기에 이혼한 사실을 밝혔던 적이 있었지만 이상한 뒷말이 따라다녀서 직장을 옮겨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H씨 그렇게 안보였는데 어디가 모자라나 봐. 가정하나 제대로 못꾸리고 이혼을 하다니...”라는 뒷말과 함께 편견과 호기심이 쏟아지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H씨는 조건이 훨씬 안좋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혼한 사실을 비밀로 하고 다닌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일상사가 흐트러지면서 자신을 내팽개치는 생활태도에서 온다. 이혼이후 많은 남자들은 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제대로 식사를 챙겨먹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니 결근이 잦아진다. 아내가 일상생활을 챙겨줄 때는 언제나 일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전사’의 품모를 보이던 유능한 조직인이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 결격사유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H씨는 이혼이후에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직업을 포기하고 유학을 떠났다. 도파성 유학이었으니 학위도 못따고 들

아왔다. 40이 넘은 나이에 할 만한 일도 없다. 그러나 그와 이혼한 아내는 아이까지 데리고 살면서 교수가 돼 있다. 곧 박사학위도 받게 된다. H씨는 이혼이후에 꾸준히 성장한 부인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H씨는 자신이 “내조만 잘해주었으면 무궁무진하게 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확신해 마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내조만 잘해주었으면”이라는 조건은 이혼한 상황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공허한 말이다.

평상시의 혜택을 고마워하는 눈을 심어주는 교육도 필요

연구자 김혜련 씨는 이들 이혼한 남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남자들이 이혼의 고통을 경험한 다음에야 결혼생활에서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이 사회가 결혼생활에서 남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서 원망스러워 한다고 말한다.

분명히 남성들에게 편리하게 짜여져 있는 사회에서 가장 남자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남자다운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이러니 칼한 모습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규범대로 잘 길러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바로 그 규범 때문에 인간적인 삶의 조건들을 상실해야 하다니 말이다.

결혼이 남자에게 프리미엄을 의미한다면 결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할 사람들은 남자들이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얻어지는 특혜들을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연금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만한 습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결혼의 프리미엄은 보너스이지 당연한 배급품이 아닌 것이다. < 김효선 기자 >